광주시내버스 '급행' 생긴다

배차시간도 빨라져… 노선 87개 로 늘려

노선개편안 사실상 확정

광주시가 준(準)공영제 시행에 맞춰 추진해온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24일 노선개편 용역 보고회를 갖고 "공동배차제 방식에서 특정 회사가 노선을 독점하는 개별 노선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승 체계 구축과 중복노선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시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연말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선개편안은 현행 77개 노선에서 87개 노선으로 늘리는 대신 20~30%에 달하는 중복노선을 폐지했다. 87개 노선은 상무·첨단·송정지구 등 대생활권을 잇는 5개 급행 간선 노선과 간선 19개 노선· 지선 63개 노선 등으로 구성된다.

■ 광주 시내버스 급행간선 구상노선안

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거리(km)	간격(분)	차량크기	주행시간(분)
상무1	상무역	송정파출소,도산동	평동역	10.6	7	대형	30
상무2	상무지구	백운광장,산수오거리,광주역,광천터미널	상무지구	25.8	7	대형	73
풍암6	매월동	백운광장,대인광장,무등도서관	장등동	17.5	7	대형	49
진월7	송암공단	백운광장,광주역,북부경찰서	일곡회차지	18.5	7	대형	52
첨단9	첨단회차지	응암공원,신가사거리,광천터미널,도청	증심사	27.2	7	대형	77

번호체계도 새 노선 개편에 맞춰 모두 2자리 수로 바꾸고 번호 앞에 출발지의 지역명을 표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20번은 첨단 40, 113번은 임곡 90번을 표기하게 된다. 하지만, 국립 5·18 묘지를 운행하거나 무등산 산장 등을 경유하는 518번과 1187번 등은 상징성을 감안, 그대로 존치했다.

급행 간선 버스(빨강)와 간선버스(청색), 지선 버스(녹색) 등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버스별로 색깔을 달리 표현했다. 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 버스를 연계한 통합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한장의 교통카드로 이들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특정회사가 일부 황금 노선을 독식하는 개별노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평가,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거나 적자 업체 등은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시내권 배차간격은 10분대로 줄고 개별 노선제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버스이용자 증가·에너지 절감·공차거리 감소·대기오염 감소 등으로 7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주시는 현행 공동배차제 방식에서는 연간 190억원 가량의 적자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시가 수익금 관리와 일부 경영 등을 맡는 대신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도입, 올해 안에 시행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노선별 색상 구분

〈급행간선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국립공원 계곡은 멸종위기種 낙원

덕유산과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 계곡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감돌고기와 멸종위기종 2급인 돌상어, 가는돌고기, 둑중개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곡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지리산국립공원 등 10개 국립공원 주요 계곡에서 우리나라 고유종인 쉬리와 열목어, 산천어, 금강모치, 미유기 등이 살고 있다.

감돌고기 등은 1급수의 맑은 물과 한여름에도 저온이 유지되는 자연상태의 계곡이나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어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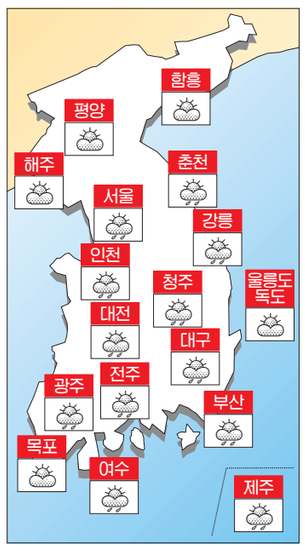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국립공원 주요 계곡에 이들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돼 계곡수 수질 환경이 대체로 안정적인 보전 상태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임주형기자 jhlim@

늦더위가 무섭네

8월 25일 (음 7월 2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고 오후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많고 소나기	24~32℃
목 포	구름많음	25~32℃
여 수	구름많고 소나기	24~30℃
완 도	구름많음	24~32℃
구 례	구름많고 소나기	25~34℃
해 남	구름많음	24~32℃
장 흥	구름많음	23~32℃
고 흥	구름많고 소나기	23~32℃
순 천	구름많고 소나기	23~33℃
영 광	구름많음	23~33℃
진 도	구름많음	24~33℃
전 주	구름많고 소나기	24~33℃
남 원	구름많고 소나기	23~32℃
정 읍	구름많고 소나기	23~3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목 포 밀물 〈 03:14 15:17 썰물 〈 08:28 20:31
여 수 밀물 〈 09:52 22:10 썰물 〈 03:46 15:52

▲해뜸 05:59 ▲해짐 19:09 ▲달뜸 07:02 ▲달짐 19:5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날 씨						
최저/최고	24/31	23/31	23/31	23/30	22/30	22/30

벌금형 광주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광태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청 공무원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24일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사를 기획한 혐의(선거법상 공무원의 기획행위 금지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광주시청 황모(46) 계장과 공무원 노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시청 직장협의회 전·현직 임원들을 초청한 점, 참석자들에게 e-메일을 보낸 점, 모임에서 박 시장의 치적, 장점, 박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언급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박시장을 위해 '지지층 결집'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등 선거 기획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식사자리를 주선하고 식비를 제공한 혐의로 노씨는 박 시장을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경호 서구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4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김경호(47)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선거운동원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했고, 이는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컸다"면서 "전송 횟수도 3만 건에 가까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2월23일부터 4월1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2만9천여통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여대생의 위문편지를 가장, 군인 653명에게 김씨를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37)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료대란 없었다 광주·전남 병원 정상진료

전남대병원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4일 전남대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 조선대병원도 임단협에 합의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의료대란은 없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미술학과 전임강사 공채 일시중단

공정성 논란 조사

전남대가 미술학과 전임강사 공개채용과 관련, 공정성 시비가 일자 공채를 일시 중단하고 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전남대는 24일 "미술학과 전임강사 공개채용에 응모한 A씨가 전공심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공채를 일시 중단하고 독립기구인 '공채 공정관리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앞서 "모집 부문을 전통 남종화로 세분화시켜놓은 대학이 '한국화'라는 광의의 전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전통 남종화와 동떨어져 보이는 '채색 비구상' 전공자인 B씨를 최종 후보자로 선발했다"며 대학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남대 '공채 공정관리위원회'위원장인 신창선 법대 교수는 "5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전공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 '채색 비구상'도 전공에 적합하다고 합의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대는 '공채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은 채용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검찰 '브로커 리스트' 만든다

법조비리 근절될 때까지 지속 감시키로

검사가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의 특별감시 대상에 오르고 대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24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혐의가 드러나 면직처분을 받는 검사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일선청 특별수사부에 대해 법조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수사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감시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일선청별로 각종 정보를 수집해 브로커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일선 검사들에게도 이들과 접촉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검사가 이 방침을 어기고 사적인 차원에서 브로커와 접촉하거나 동료 검사에게 소개해 주다 적발되면 대검 감찰부의 특별감시를 받다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검찰공무원 윤리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비리·비위 사실이 있는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으면 해임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4분의 1 가량을 감액하고 공직 제한 취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25일)	
정형근	224-6100
●법무사회 법률상담(25일)	
김재환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